

영등포구민과 중국동포·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2013 어울림 한마당 축제' 영등포 아트홀서 개최



영등포구(구청장 조갑형)는 제6회 세계인의 날(5.20) 주간을 맞아 5. 23일(목) 영등포 아트홀에서 구민과 중국동포·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2013 어울림 한마당 축

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계전통공연, 한국전통공연, 다문화가족 전통노래자랑,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식 등을 진행하며 구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로, 이번 행사는 제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영등포구에서 작년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다문화 관련 축제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다양한 국가의 전통공연,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전통 댄스 공연, 중국 전통 기예,번갈 공연, 한국전통공연 수목화대북 등 다채로운공연은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5쌍에게 한국식 전통혼례를 올려주고, 결혼이민자의 고국에 있는 친정부모 12명을 초청해가족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워 결혼한 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족 24명을 선정하여 친정을 보내주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범 주성걸 기자

한국의 전통 결혼 문화

집들이



집들이라는 말은 ‘입택’(入宅)이라는 한자어를 한글로 풀이한 것이다. 집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금의 과학적 사고방식과는 달리 ‘살아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존재끼리 서로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듯이, 집들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들이를 잘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 가야 할 터전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삶의 안녕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옛 시대에는 집안의 안녕은 집주인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원만함뿐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인 집을 보호하는 여러 수호신들의 도움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집들이는 집주인의 인간관계 유지라는 목적이 강하고, 수호신을 공경하는 측면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물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집들이에서 종교적

의식을 치르기는 하지만, 집을 수호하는 신은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집을 살아 있는 존재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다. 집들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혼집 집들이’이다. 신혼집은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두 사람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터전이기 때문이다. 집들이에서는 주로 성찬이 베풀어진다. 예나 지금이나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흔한 모습이다. 요즘 시대는 신랑 신부가 한꺼번에 집들이를 하지 않고, 시댁과 친정의 가족들을 구

분하고, 신랑의 사회적 관계와 신부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손님들을 구분한다. 장소도 굳이 신혼집이 아니라 식당을 잡기도 한다. 집들이 선물로는 성냥이나 양초, 세제류 등을 많이 하고, 현금을 따로 준비해 건네주기도 하며, 필요한 살림살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마련해 주기도 한다. 모두 신혼살림을 위한 따뜻한 행위이다. 성냥이나 양초는 가세가 불처럼 번진다는 뜻이지만, 불씨를 가지고 입주하면 옛 관습이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제는 순결과 순수를 상징하며, 소독의 의미처럼 나쁜 기운을 쫓는 상징이기도 하다.

돌싱女 39%, '이럴 때' 재혼에 회의가 든다!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 남성은 주변에서 결혼에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를 보면 재혼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여성은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찾기 못할 때 재혼을 꼭 해야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www.ionlyyou.co.kr)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레(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16일 ~ 22일 사이 전국의 재혼희망 돌싱남녀 738명(남녀 각 369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재혼에 대해 회의가 들 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0.4%가 ‘주변의 좋지않은 결혼 경험을 볼 때’로 답했고, 여성은 39.3%가 ‘원하는 재혼상대를 찾지 못할 때’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원하는 재혼상대를 찾지 못할 때’(24.4%) - ‘자신의 좋지 않은 초혼실패 경험’(18.4%) - ‘교제시 상대의 좋지않은 행태를 볼 때’(14.6%) - ‘자신의 열악한 재혼 여건’(12.2%) 등의 답변이 뒤따랐고,

여성은 ‘교제시 상대의 좋지않은 행태를 볼 때’(31.4%) - ‘주변의 좋지않은 결혼경험을 볼 때’(15.7%) - ‘자신의 좋지않은 초혼실패 경험’(7.9%) - ‘자신의 열악한 재혼여건’(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손동규 온리-유 명품재혼위원장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모두 정신적 상처가 남는 것은 물론 재산분배나 위자료, 자녀 양육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이혼과정에서 남성은 아무래도 재산이나 자녀 등에 대해 불만스럽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성은 자신의 삶에 확실한 도움이 되지 않을 재혼은 원하지 않으므로 재혼상대를 찾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혼 꼭 하려는 이유? ‘재대로 된 결혼 해보고파!’

‘초혼실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꼭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압도적 다수가 ‘재대로 된 결혼생활을 해보고 싶어

서’(남 61.8%, 여 76.7%)로 답했다. 특기할 사항은 여성이 남성보다 14.9%포인트 높다는 것이다.

그 외 남성은 ‘혼자 살기 불편하여’(17.9%)에 이어 ‘혼자 살기 힘들어’(13.6%)가 뒤따랐고, 여성은 ‘혼자 살기 힘들어’(13.0%) 다음으로 ‘초혼실패를 보상받기 위해’(6.5%)가 뒤를 이었다.

유기정 비에나레 상담 매니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녀 모두 상대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나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피해의식이 더 크다”라며 “따라서 초혼과 같은 결혼환상은 아니더라도 재혼을 통해 남부럽지 않은 결혼생활을 해보고 싶은 것이 남녀, 특히 여성들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에나레



결혼 후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했다.

이어 ‘시댁(친정) 식구들과의 관계’(123명/33.4%), ‘회사동료 및 이성친구 문제’(42명/11.4%), ‘자녀계획 및 육아문제’(37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응답자는 ‘시댁(친정) 식구들과의 관계’(209명/52.6%)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뒤 이어 ‘생활비, 적금 등 금전적인 문제’(116명/29.2%), ‘자녀계획 및

육아문제’(52명/13.1%), ‘회사동료 및 이성친구문제’(21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회원 조모씨(29·여)는 “시월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시집살이에 대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며 “명절, 생신 등 다양한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분명 남편과 의견차이를 보일 것”이라 응답했다.

결혼정보업체 수현의 김희성 팀장은 “결혼이란 전혀 다른 삶을 살아 온 두 사람이 만나 공통의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며 “어쩌면 서로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른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배려심이다”고 말했다.

/수현

다 읽고난 신문은 버리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봅시다.

프리미엄 디젤 세단의 시대를 열다

컴팩트하고 강력한 심장
탁월한 연비와 정숙성까지

가솔린 2.0 GDi 엔진
178ps 13.1km/ℓ

디젤 1.7 VGT 엔진
140ps 18.0km/ℓ

성능과 연비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다

세련된 스타일과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특징으로 하는 신개념 중형 세단으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디젤 모델을 보유, 고유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용 디젤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모델

HYUNDAI

The European Premium i40 출시